

KIA 셋별 하준영 올스타전서 '반짝'



21일 창원NC파크에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다. KIA 하준영이 박홍식 감독대행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4타자 연속 탈삼진 '우수 투수상'... 선수단 합류 후반기 준비 돌입 "첫 올스타전 여한없이 즐겨...이 기세로 후반기 좋은 성적 내겠다"

승부 근심 제대로 발휘하고 돌아온 '올스타' 하준영이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하준영은 지난 21일 창원 NC파크에서 평생 소원 중 하나를 이뤘다. 그가 이른 소원은 바로 '올스타전 출전'.

소원성취만 한 게 아니다. 생애 첫 올스타전을 앞두고 "전력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던 하준영은 '4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올스타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우수투수상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까지 챙겼다.

하준영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내

가 올라갈 때 7-2에서 1:3투였는데 여기서 내가 못 막으면 경기 끝날 것 같았다"며 "경기 망치 싫으니 이번 회만 막자는 생각으로 전력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상금으로 맛있는 것 사 먹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투수들이 다 열심히 던졌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대 선발이었던 SK) 김광현 선배님이 스타트를 끊었다"며 "올라오자마자 140km 후반을 던지니까 다른 투수들도 전력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되고, 나도 그걸 이어받았다"고 웃었다.

첫 올스타전 무대는 신기하고도 즐거운 무대였

다.

하준영은 "경기를 하는데 페르난데스에 이어 최정, 로맥 이런 타자들이 나와서 신기했다. 게임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선수가 누구인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력으로 했다"며 "첫 올스타전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기는 했는데 계속 같이 하다보니 분위기도 좋고 팬들도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좋았다"고 첫 올스타 무대를 돌아봤다.

사실 올스타전을 치르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 부지런히 날씨 예보를 찾아보기도 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20일이 아닌 21일 어렵게 진행이 됐다.

하준영은 "(경기가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어요. 일요일에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왔다. 일기예보 열심히 봤다"고 말했다.

올스타전으로 기분 좋게 전반기 마무리한 하준영은 기세를 이어 후반기에도 좋은 활약을 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22일 바로 선수단에 합류해 후반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준영은 올 시즌 초반 KIA의 '셋별' 주목을 받으면서 필승조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전반기 중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침의 시간을 보냈다.

하준영은 "전반기 막판에 안 좋았던 게 사실이다. 당연히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이 몰렸던 것 같다. 확실히 힘이 떨어지면서 좋지 못했다"며 "내가 더 잘해서 믿음을 얻고 더 많은 활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올스타전 때 잘 던졌으니까 좋은 기 받아서 후반기 때도 잘하면 좋겠다. 좋은 결과 내도록 준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라우리, 감격의 첫 '메이저 킹'

제148회 디오피 챔피언십 15언더파 우승...박상현 공동 16위

세인 라우리(32위·아일랜드)가 제148회 디오피 챔피언십(총상금 1075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라우리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파71·73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로 1오버파 72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라우리는 9언더파 275타로 단독 2위에 오른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를 6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우승 상금 193만5천달러(약 22억7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 대회전까지 2016년 US오픈 준우승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던 라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아일랜드 선수가 디오피에서 우승한 것은 2008년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1951년 이후 68년 만에 북아일랜드에서 브리티시오픈이 열린 해였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던 흙 코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첫 탈락하면서 북아일랜드 팬들의 실망감이 컸지만 대회장에서 약 280km 떨어진 아일랜드 멀린 출신 라우리의 우승은 현지 팬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다.

3라운드까지 2위 플리트우드에 4타 차로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선 라우리는 4라운드에서도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우리가 1번 홀(파4)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했으나 2위에서 따라붙을 기회를 엿보던 플리트우드도 3번 홀(파3) 보기로 타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라우리는 4, 5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오히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한때 6타 차까지 앞서서 싱거운 승부가 펼쳐졌다.

최근 4년 연속 디오피에서 첫 탈락한 라우리는 1996년 톰 리먼(미국) 이후 23년 만에 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오버파를 치고도 우승한 선수가 됐다.

토니 피나우(미국)가 7언더파 277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켈카(미국)는 6언더파 278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올해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마스터스,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켈카는 이번 대회에서도 준우승 이상을 했더라면 남자 골프 사상 최초로 한 시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2위 이상의 성적을 내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박상현(36)은 이날 2타를 잃었지만 최종합계 2언더파 282타, 공동 16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라우리가 21일(현지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48회 디오피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쉬운' 맞대결

손흥민, 인터내셔널 챔스컵 출전
토트넘, 유벤투스에 3-2 승리
우상 호날두 앞 슈팅, 골대 불운

2년 만의 맞대결에서 손흥민(토트넘)은 골대를 때리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전매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쳤다.

토트넘(잉글랜드)은 21일 싱가포르 칼링의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ICC) 1차전에서 2-2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 시간 해리 케인의 초장거리 결승골이 터지면서 3-2로 승리했다.

2019 ICC 첫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꺾은 토트넘은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2차전을 벌인 뒤 8월 4일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3차전을 펼친다.

이날 경기의 최대 관심은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과 유벤투스의 득점기계 호날두의 맞대결에 쏠렸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처음 만났다. 호날두는 당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뛰고 있었다. 아쉽게도 둘의 첫 만남은 손흥민이 후반 44분 교체로 출전하면서 4분 남짓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년 만에 성사된 두 선수의 대결에 국내 팬들의 관심이 쏠아졌다.

팬들의 바람대로 둘은 제대로 맞붙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투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고, 호날두는 유벤투스의 왼쪽 날개로 나섰다.

17세 신예 공격수 트로이 패렛과 투톱 스트라이커 호를 맞춘 손흥민은 전반 4분 패렛이 찢어진 패스를 골지역 왼쪽에서 이어받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노렸지만 유벤투스 왼쪽 골대를 때리고 나오며 아쉬움을 남겼다.

'골대 불운'으로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은 전반 8분에도 패렛과 호흡을 맞춰 슈팅을 시도한 게 또다시 골대를 벗어나며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손흥민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루카스 모라와 교체됐고, 호날두는 후반에도 출전하면서 2년 만의 대결은 45분으로 끝났다.

손흥민 대신 그라운드에서 나선 모라는 후반 20분 '이적상' 탕카 은돌벨레의 크로스를 골지역 오른쪽에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전후반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토트넘은 극적인 결승골로 유벤투스를 무너뜨렸다.

/연합뉴스

1분만 견뎠어도

K리그 2 전남, 안산에 0-1 패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마지막 1분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21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K리그2 20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실점하면서 0-1로 졌다.

전반전 한 차례 슈팅에 만족했던 전남이 후반전 5차례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기록된 유효 슈팅은 1개였다. 안산은 전·후반 8개 슈팅을 날렸고, 이 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장식했다.

상대의 공세를 잘 막은 전남이 0-0으로 맞선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돌입했다. 주어진 추가 시간은 4분.

하지만 경기 종료까지 불과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 김진욱의 패스를 받은 방찬준이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다. 안산의 9번째 슈팅은 이내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안산의 골 세리머니에 이어 이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전남의 패배가 기록됐다.

6승 4무 10패(승점 22)가 된 전남은 그대로 8위 자리를 유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